

감산운동에 적극 동참을...



정 인 혁

- 유정농장 대표
- 전 이천채란분회장

80%이상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는 14,000수의 산란계를 도계장으로 실려보내면서 이런 지경에까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과거 IMF 경제위기 때에도 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에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경제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자연적인 감산운동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과잉상태가 너무 심해 '너도 죽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채란양계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병아리를 계속 입추시키고 있는가 하면 1,200원에

거래되던 중추가격이 현재에도 1,800~2,000원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농가에서 지속적인 입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란수입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산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 파동의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깊이패인 불황의 매듭을 풀어갈 수가 없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일원 양계인들이 결의를 통해 이미 감산운동에 들어갔다. 3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지에는 무조건 1마리씩 적게 넣고 입추도 2~3개월 늦추어 받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실천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감산하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는 양계인들도 있겠으나 양계업의 절박한 상황을 풀기위해서 동감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공생공존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전국의 양계시설은 정부지원하에 199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대규모 모농장들이 전국에 자리잡고 있으며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 계란소비도 가공란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모두 감산운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양계